

법기보살 主處, 화엄내력 지닌 사찰



소실문화재 남북공동복원의 첫 사례가 될 신계사의 복원을 위한 지표조사가 지난해 11월2-10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실시됐다. 현재 신계사터에는 삼층석탑만이 남아있는데 석탑조각기단이 깨어지고 화재로 손상을 많이 입었다. 신계사터 발굴조사단이 현장조사전 탐 앞에서 예불하는 모습.



금강산 신계사터



의 폐허를 아직 상연조차 못한 까닭도 있었지만 신계사 터만은 다른 폐사지들과 달리 어디선가 마른 연꽃향내를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물기조차 말라버린 세월의 밑바닥에 주춧돌만 등성등성 드러난 이 나라 불교역사의 하상(河床)을 보는 듯 하기 때문이다. 원산을 거쳐 삼일포로 가면, 속초에서 설봉호를 타고 장전항에 하선(下船)하면, 아직은 영산동(靈神洞)이나 선왕목을 거쳐 외박재령을 넘을 수 없기에 당장은 외곡강



신계사는 6. 25 한국전쟁때 소실됐다. 해방전 신계사의 모습.

김유신 등 이곳서 3국통일 발원 폐허위엔 쓰러질듯 3층 석탑만

폐허도 아름다운 산. 그 산이 바로 금강산이다. 신 전체가 하늘의 층계에 분재(分在)를 올려놓은 듯 아가지기한데, 그 향기로운 속내마다 세월의 사정인 듯 망가진 절터들이 뿔뿔하고 있으니, 폐허조차 한 폭 '구름'으로 들어앉힌 산이 금강산이다. 금강산의 격조는 변화의 아름다움에서 나온다. 언제 보아도 같은 얼굴인 고성미애가 아니라, 칠마라, 갈 때마다, 찾는 이의 마음에 따라 그때마다 적절한 미를 연출해 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같은 골짜기에도 봄에 보면 '금강'이요, 가을에 보면 '풍요'인 것이다. 살아있는 아름다움이 금강의 아름다움이며, 폐허조차 살아있는 폐허가 또한 금강의 폐허인 것이다. 금강의 미를 규정권이 아닌, 폐허조차 아

름다움으로 탐험하려는 이는 보았을 것이다. 밤 새워 뱃길을 달려 휘청이는 발길을 '창터 숲밭'으로 접어들면 이내 종아리가 뻗뻗해 지고 도열한 미인송(美人松)처럼 일어서고 싶은 것을, 미인송들의 팔장을 끼고 쉬엄쉬엄 '극락고개'를 넘으면 거기 문필봉(文筆峰) 무릎아래 아직도 한 폭의 폐허가 고즈넉히 숨쉬는 것을—
그렇다. 신계사의 폐허는 한말기의 연꽃이다. 붉은 솔잎 한들한들 수놓을 놓는 비탈 밭 한 가운데 쓰러질듯 3층석탑만이 빈 꽃대인양 홀로 서서 완벽한 폐허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금강산의 수많은 폐사지 가운데서도 유독 신계사의 폐허가 마음을 아리게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것은 유점사나 장안사

입구를 기웃거리며 은총리의 향기인 신계사터 폐허의 만나야 한다. 금강산이 비록 법기보살의 주처이고 신계사가 화엄(華嚴)의 내력지닌 사찰이라고는 하나, 오직 망가진 돌탑 한 개를 드리운채 홀로 된들 뜰 앞 가득 복사꽃을 터트리는 신계사는 분명 고은(高銀) 선생의 말씀대로 상제보살(尙帝菩薩)을 닮았다. 선생은 삼년 전 북녘의 산하를 탐방하면서 이곳 신계사에 올랐을 때 반야를 구하는 간

절한 마음으로 늘 울기만 한다"는 그 상제보살을 떠올려다. 근대의 고승인 스승 호봉(胡鳳)스님이 출가한 절로 그 아련한 구도의 체취를 느끼셨으니, 어찌 상제보살의 심정이 되지 않으실 수 있었겠나. 신계사는 신라 불교의 전래초기인 법흥왕 6년(519년) 보은조사(普雲祖師)가 창건한 고찰이다. 1951년 6월24일 미공군의 폭격으로 전소되기 까지 역사의 구비마다 피고지며 이 나라 민중들에게 금강산의 아름다움

이 동토(凍土)의 땅에도 해방의 바람이 불어 신계사 복원을 기원하는 산신제가 열리고, 봉축 연등이 걸리기는 했어도 신계사의 폐허는 아직도 국보유적 95호의 폐허인 채 그대로이다. 잡초들이 기단이 되어 적막을 떠받친 돌탑의 세월, 의종계 거느리던 부속임자들, 하나도 그 기법을 듣지 못해도 무성의 한 그 세월, 묵묵히 잠아내는 그대로이다. 이 땅의 백성들이 삼재판으로 뒤척일 때마다 신계사역사 운명을 같이하며 역사의 이랑에 피고 지기를 거듭했으니, 지금은 꽃 지고 무상의 열매만 남은 다시 그때인 것이다. 신계사는 지금까지 서너 차례 소실과 중수를 거듭하였다. 한번 태어나면 나고 죽음이 일어—그러하여, 상(喪)이 있거나 상이 없거나, 그 생명이 영원한 것이 사원의 속성

이니, 신계사 또한 그러하여, 망친 이도 되살린 이도 지금은 모두 땅 속에 묻혀 사대(四大)법신으로 신계사를 외호하는 것이다. 신계사를 되살린 이들은 고려 때의 묘청(妙淸)이 있었고, 조선조에는 뇌운대선사(雷雲大師)와 대운선사(大運大師) 같은 이들도 있었다. 또 근세에는 대웅당(大雄堂) 같은 고승이 이곳에 머물며 화엄의 묘제를 설했으니, 한꺼번에 3천여 신도들의 귀의를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고려 말 비운의 주인공 정심(淨心)스님 묘청만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니, 그는 이곳 출신으로 평양천도를 주장하며 민족 주체성을 되찾기 위해 고뇌한 사문이었기에 요승(要僧)이 아닌 시국사범이었음을 유념하고 싶다. 그가 역사에 남기고 싶었던 말들은 무엇일까. 지금도 울창한 저 숲길들의 어깨에 주렁주렁 매달린 솔방울들이 그가 남기고 싶은 말들이었을까. 어디 묘청의 사연뿐이라. 1천5백여 상상을 지나며 이 절을 거쳐간 무수한 운수남자들조차 솔방울의 수 만큼 헤아릴 수 없으리니, 가로 세로 표시한 남은 대웅전, 극락전 터에도 그들의 남겨진 사리인양 솔방울들이 흩뿌려 뒹군다. 임진왜란에 이어 한국전쟁 시기에 두 번 때로 다시 넘어진 신계사는 그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반백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어 서지 못했다. 무너지면 다시 일어선 신계사도 이번만큼은 그 광기의 후유증이 얼마나 지독한지 짐작할 제 정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소문에 산 넘어 유점사, 장안사도 연이어 넘어진 뒤 무엇이 두려운지 아직까지 일어 서지 못했다. 부처님 도량을 멸실하는 것도 4배라야(彼羅夷非 가온대 하나)라고 했는가. 지난해 8월 불교인권위원회 진관스님은 미군들의 이 행위를 범죄 행위로 규정, 배상을 청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으나, 그 공허함은 이 땅의 불도량을 지켜내지 못한 불자들에게 자괴감만 더해주는 것이었다. 얼마 전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은 신계사 터의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원을 위한 지표조사였기에, 그 조심스런 첫 삽은 통일외의 의지를 심는 매우 소중한 작업이었다. 기울어진 돌탑의 문양을 역물로 찍어내어 배시시 눈뜨는 마애불의 미소를 탁본하며 보았을 것이다. 그것이 이 땅에 일찍이 민중들의 상처이며, 그 고통이 부처님의 가르치로 치유된 연꽃의 문신인 것들. 통일의 분위기도, 복원의 의지도 아직은 미덥지 않아 돌아오는 '뱃길은 언제나 허전하다. 복원을 위한 지표조사는 비단 무너진 전각들의 사실조사도 중요하지만, 남북 불교간, 당국자간 신뢰 지표조사도 더 없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남북(南北)간, 남(南)북(南) 불자들이 신뢰지표로는 우회하는 공해상의 거리만큼 슬픔이고 혼미하다. 그러나 한번 열린 신계사 뱃길은 기어코 열릴 것이다. 연꽃을 향해 별 나비 춤추듯 뱃길이 아니면 육로도 돌아갈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유점사 범종도 다시 울리고, 보덕암 쇠가동에도 세운이 들으리니, 신계사 터만 돌탑은 또 다시 연꽃으로 민개하여 온 정리를 마땅한 법기보살 염주알인 듯 팔만사천 솔방울들 흘러내리리라.

<다음은 강원도 양양 진전사터 편>

法輪藏
공장 (Dharma Chakra Pitakal)이란 무엇인가?
법륜장, 경륜장 또는 윤장대(輪藏臺)는 인도나 티베트 등을 불교에서 널리 경전신앙의 영장(靈藏)소용 허업상체 그리고 조상(宗師)들의 의미로 사용되어 온 일종의 불교의식 도구이다. 불교의식 도구와 경전신앙이 합쳐져 실현되고 있는 신앙행위 그 자체이다. 법륜장과 경전신앙은 어디까지나 일반신도들을 위하여 생겨난 매우 실용적인 신앙도구라고 하였다.
특히 티베트 불교의 문물문화에서 이 법륜장은 일반신도들에게 인기있으며, 절에 가면 누구나 이 법륜장을 둘러보므로 신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용신안 20-2001-0029858 ●의 장 30-2001-14622호 ●상 표 40-2001-19831호

경전신앙의 상징, 법륜장 (담마차크라)

경전신앙의 상징, 법륜장(윤장대)을 한국불교 정서에 맞게 제작하여 사찰에 봉안하고 있습니다.
한번만 법륜장을 둘러도 팔만대장경을 한번 읽는 것과 같은 신앙적인 효과를 내는 법륜장을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륜장은 티베트나 몽골에서는 라마승과 목수가 택일을 하여 나무를 베고 기도와 주문을 외면서 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일찍이 윤장대라고 하여 예천 용문사 대장전에 2개가 봉안되어있으며, 고려 충렬왕 때 국태민안을 위해 법륜장(윤장대)를 둘러 의식을 봉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수령 1백년이 넘는 인도네시아산 알마시카 나무로서 둘레가 5M 지름이 2m가 넘는 원목을 사용하여 문화재 목공장이 제작하였습니다.
신비의 영험있는 티베트 대장경 간주르 108권을 티베트 라싸에서 직접 이윤하여 법륜장에 모셨습니다.
※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며 안내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장 정병욱(측업)
대표이사 정광우(법륜)
(문화재 기능보유자 1495호)

본 사: 대구광역시 검서동 990-198 청운빌딩 5층
전화 053-986-9200-2, 팩스 053-986-9202
아간 011-553-3004
서울지사: 서울중로구 낙원동 243-3 경동빌딩 602호(대중문화대학내)
전화 (02)741-5210 팩스 011-506-0040

http://www.담마차크라.com
www.법륜장.com
www.윤장대.com
e-mail: dharmachakra@hanmail.net

법륜장각(法輪藏閣)

법륜장(法輪藏, Dharma Chakra Tripitaka)란 무엇인가?
법륜장, 경륜장 또는 윤장대(輪藏臺)는 인도나 티베트 등을 불교에서 널리 경전신앙의 영장(靈藏)소용 허업상체 그리고 조상(宗師)들의 의미로 사용되어 온 일종의 불교의식 도구이다. 불교의식 도구와 경전신앙이 합쳐져 실현되고 있는 신앙행위 그 자체이다. 법륜장과 경전신앙은 어디까지나 일반신도들을 위하여 생겨난 매우 실용적인 신앙도구라고 하였다.
특히 티베트 불교의 문물문화에서 이 법륜장은 일반신도들에게 인기있으며, 절에 가면 누구나 이 법륜장을 둘러보므로 신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